제17대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출범식 취임사(노동조합 위원장)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대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정광수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은 교내 수목들의 색깔을 바삐 바꾸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주 기분 좋은날 오늘 출범식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열일곱 번째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아주 뜻 깊은 날에 귀하신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정갑영 총장님,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김상수 연맹 위원장님과 산하 가맹 대학 노동조합 위원장님들. 법인산하 연세대학교 노동조합협의회 8개의 각 단위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출범식의 주인공이신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동지여러분! 교내·외에서 오늘 출범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의 우리 대학 내의 최대 이슈는 총장 선출입니다. 제17대 노동조합도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연세인 범 궐기대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7일에 열렸던 이사회에서는 [인준투표]가 폐지되었고, 그 대안으로 [연세구성원 의견 수렴]에 대한 안을 10월2일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
연세대학교 총장선출 방식과 절차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연세대학교의 건학정신과 이념을 바로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소명을 훌륭하게 완수해야만 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사회 또한 새로운 연세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노사의 상생 합의의 명목으로 [직급별 호봉승봉제한]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절약한 직원의 인건비는 학교의 발전을 위

하여 재투자 되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난 몇 년간 특별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여 선배 직원들에게 마치 지금 퇴직하여야 최대의 경제적 이익과 연세의 발전을 위한 결정인 양 은퇴 바람이 불어 많은 수의 선배 직원들이 퇴직을 서둘렀습니다.

선배 직원들이 떠난 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일은 점점 복잡해지고 업무량은 많아지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생만 강요당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세계 최고의 사학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조직이 발전하고 경쟁대학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년을 10여년이나 남겨 놓고도 자신의 호봉이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된 직원들과 30대의 젊은 나이에도 직급별 호봉제한에 걸려 호봉이 오르지 않은 직원들의 서러운 심정을 어찌 이해해야합니까?

우리 교직원들을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소중한 자산과 희망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각 직급별로 정한 호봉을 상향 조정하여 고통 받는 직원들의 상처를 쓰다듬을 줄 아는 성군의 리더십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 사회에 불고 있는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의 바람은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몇 년간 모두 지나가 버린 듯합니다. 살아남은 조합원들은 앞으로 더 똘똘 뭉쳐할 것입니다. 그 앞에 노동조합이 항상 서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희망을 말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픈 현실을 말씀드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틀 뒤에 있을 [백양로 그랜드 오프닝]은 연세대학교 창립 이래 최고의 성대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백양로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군데로 모여져 그 성과를 보게 된 것은 참으로 연세의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최고의 사학인 연세대학교에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위상재고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과 결연한 의지를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출범식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으며, 저는 앞으로 제17대 노동조합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고, 조합원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도 마다하지 않는 [섬기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가 우리 노동조합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취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